

한글전시매체의 시학(Poetics)과 정치학(Politics)*

-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분석을 중심으로

엄소연**

【 차 례 】

- I. 머리말
- II. 〈국립한글박물관〉의 ‘한글’과 한글
- III. 〈국립한글박물관〉 전시매체의 의미층위
- IV. 맺음말을 대신하며: ‘전시의 시학과 정치학’

국문초록

이 글은 박물관학 및 전시기호학적 관점에서 <국립한글박물관>(이하 <국한박>으로 약칭)의 임무를 기반으로 한 전시내용의 분석을 통해, 한글매체와 전시매체가 서로 교차하며 발생하는 의미와 가치를 규명한 것이다. 2014년 한글날 개관한 <국한박>은 최초의 한글 전문 국립박물관이며 2007년 한글날 오픈한 사이버박물관인 <디지털한글박물관>을 실재화한 것이다. 양자는 모두 세계화시대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주도형 문화산업진흥정책의 일환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즉, ‘한글’의 문자적 우수성·과학성을 활용해 한글의 문화적 실용성·산업성을 강조한 한글문화의 효용적 가치로, 한글을 국가핵심콘텐츠로 육성하려는 목적성이 강하다.

이와 같은 <국한박>의 임무와 정치적 의도는 전시주제·구성 등의 의미망을 형성하며 방문자는 전시주제가 재현의 장치로 고안한 ‘보여주고 싶은 것’을 경험하고 그 의미를 이해한다. <국한박>은 실물의 부족에서 비롯한 영상이미지 위주로 ‘이미지의 파라다이스’를 형성, 감동과 교훈 보다 체험과 재미를 통해 국가이미지를 강조한다. 이

* 이 글은 2010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HK)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61-A00013).

**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한국(HK)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리한 방문자의 ‘보기’와 ‘체험하기’의 의미층위는 ‘사이 공간’의 ‘보이지 않는 경험’의 중요성과 더불어 박물관의 가치를 환기시킨다. 이에 박물관을 문화요소로 수용한 서구의 ‘신(新) 박물관이론학’의 적용이 야기하는 ‘전시의 시학과 정치학’의 논의를 통해 <국한박>의 가치를 재고해 본다.

열쇠어 : 한글, 전시, 매체, 의미층위, ‘전시의 시학과 정치학’, <국립한글박물관>

I. 머리말

현재 우리나라 등록박물관·미술관은 1,000여개에 달한다.¹⁾ 이중에서 2014년 한글날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이하 <국한박>으로 약칭)은 최초로 문자(한글)를 전문으로 한 국립박물관이자 사이버박물관인 <디지털 한글박물관>(2007년 한글날 개관, 이하 <디한박>으로 약칭)이 실제화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이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로는 <디한박>과 관련한 논의 2건,²⁾ <국한박>에 관한 8건³⁾ 등으로 <국한박>이 개관한 이후 연구가 증가하

1) 2015년 통계에 따르면, 등록박물관은 780개, 등록미술관은 202개이다. 문화체육관광부, “e-나라지표: 등록박물관/미술관 현황”(http://stat.mcst.go.kr/mcst/resource/static/index/index03.html).

2) 한문희, 「디지털한글박물관 구축 사례: 디지털문화콘텐츠의 대중적 접점, 디지털박물관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의 모색」, 『인문콘텐츠』 2, 인문콘텐츠학회, 2003, 375~403쪽. 이기성, 「한글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연구 모음-디지털 한글박물관 프로젝트(2005~2006)」, 『출판논총』 3, 한국전자출판연구회, 2006, 167~401쪽.

3) 박주연,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 성격 분석: ‘한글이 걸어온 길’ 상설전시 중심으로」, 서울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서지민, 「어린이 박물관에서의 유아 체험교육 개발방안 연구: 국립한글박물관 내 한글놀이터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경인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박재현, 「국립한글박물관 관람프로그램을 활용한 한국 문화체험수업 방안-〈전시해설〉에 스토리텔링을 적용하여-」, 『언어와 문화』 11(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5, 1~25쪽.

태지호, 「문화적 재전유의 공간 모색을 위한 <국립한글박물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기호학연구』 49, 한국기호학회, 2016, 149~176쪽.

권순희,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가곡원류(歌曲源流)』(고태진 필사본)의 특성과 계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야별로는 국문학(3건), 교육학(2건), 문화학 분야(3건) 등으로 분포되는데 특히, 문화학 관련 연구들은 다양한 문화담론을 적용해 박물관의 소장품·전시·교육프로그램·관람객 분석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글 및 박물관 전시가 매체로서 상호 교차하며 발화하는 의미에 주목하고, 박물관학 및 전시기호학의 관점에서 <국한박>의 의미망과 전시구성의 분석을 통해 그 의미충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 결과를 박물관의 가치에 중점을 둔 ‘전시의 시학과 정치학’이란 측면에서 검토해 볼 것이다.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한박>이 제시하는 ‘한글’과 한글을 <국한박>의 위상과 관계망, 그리고 <국한박>의 임무와 한글자료로 구분해 논의한다(Ⅱ). 다음으로 <국한박>의 전시주제, 의미망, 전시구성의 주요 사례들을 분석해 매체적 의미충위를 살펴본다(Ⅲ). 끝으로, 이상의 결과에서 도출되는 시사점을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한글’의 민감성, 한국 박물관의 역사사회적 맥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전시의 시학과 정치학’의 측면에서 <국한박>의 가치를 전망하며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Ⅳ).

다만, 본 연구는 논의를 집중하기 위해 기획·특별전시⁴⁾와 교육프로그램 등 기타 박물관활동은 제외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古典文學研究』 50, 한국고전학회, 2016, 73~97쪽.

이승희,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 『선비정부인박시유사』의 자료적 고찰」, 『韓國文化』 75,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한국문화), 2016, 97~125쪽.

김주연 외, 「국립한글박물관 외래관람객 방문행태간 연관성 및 차이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6), 한국콘텐츠학회, 2017, 116~123쪽.

서유경, 「<강씨 집동전>(국립한글박물관소장, 박순호 구장본) 연구」, 『문학교육학』 54, 한국문화교육학회, 2017, 231~253쪽.

4) 현재까지 13회의 전시가 실행됐다. <국한박> 누리집 참조.

II. <국립한글박물관>의 ‘한글’과 한글

1. <국립한글박물관>의 위상과 관계망

<국한박>은 국립박물관⁵⁾이자 문자(한글)를 주제로 한 전문박물관⁶⁾이다.[그림 1] 하나의 박물관으로 명명되고 존립한다는 것은 보편적 기준 및 수준을 지향한다는 뜻이다. 단지 국제적 수위에서 비교하는 우수함이 아닌, 세계화의 알고리즘에서 그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미 박물관과 직결된 문화재(유형·무형)는 세계화로 규정되는 체계의 관리·감독⁷⁾을 권고 받으며 관련법 내지 윤리⁸⁾를 준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물관은 표준화·정보화를 수행하며 국내외 다른 박물관과 관계망 및 협력망⁹⁾을 구축한다. 따라서 <국한박>의 국내외 위상을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하 「박미법」으로 약칭)」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6) 전문박물관은 규모와 상관없이 전시품 및 전시주제의 분야가 전문성을 갖는다는 것으로, 인문계와 자연계를 아우른 종합박물관과 대비된다. 이난영, 『박물관 관리 운영의 이론과 실무, 博物館學』, (주)삼화출판사, 2011(2008), 119~120쪽 참조.

7) ‘보존할만한 보편적 가치’로 ‘UNESCO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re)’가 선정하는 ‘세계문화·자연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들 수 있다.

8)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UNESCO 유관 비정부·비영리 국제기구로 1946년에 설립)의 ‘박물관 윤리강령’은 박물관 및 박물관 종사자들의 실무와 직무에 대한 윤리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ICOM 누리집 참조).

9) 「박미법」 제33조(박물관·미술관 협력망):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외 체계 구비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의 정보화·효율화

4.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또한, 「박미법」 시행령[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의 제20조(협력망 구성 등): ②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에 각각 중앙관과 지역 대표관을 두되, 박물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미술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되며,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의



[그림 1] 한글 모음의 제자 원리인 천·지·인을 형상화한
〈국립한글박물관〉 전경(직접촬영, 2017.9.)

살펴보는 것은 단지 비교적 차원이 아니라 그 존립의 이유는 물론, 어떤 관계망·의미망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 가능하게 해주는 일이다.

먼저 국내의 경우, 한글과 관련한 박물관 및 관련 문화기관¹⁰⁾은 (사)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1973년 10월 9일 개관한 <세종대왕기념관>¹¹⁾ 2009년에 문을 연 사립박물관 <우리한글박물관>¹²⁾과 서울시가 만든 <세종이야기·충무공이야기 전시관>¹³⁾ 그리고 2017년 5월 15일 세종대

지역대표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중앙관에 통보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6.11.29.]

- 10) 기념관, 전시관 등도 박미법의 적용을 받는다. 「박미법」 제5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8.2.29, 2009.3.5]
- 11) 서울 청량리동 소재. 실내전시의 구성은 1)일대기실 2)한글실 3)과학실 4)국악실&특별전시실이며 실외전시에 세종대왕동상, 수표(水標, 보물 제838호)와 세종대왕 신도비(神道碑,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호), 해시계, 물시계 등이 있다.
- 12) 충북 충주소재. 한글관련 유물 5천여점 소장.
- 13) 2007년 ‘국가상징가로’ 조성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지하 2층(광화문광장 지하)에 위치. 세종대왕과 임진왜란 당시 큰 공을 세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왕 탄신 620돌을 기념해 개관한 <세종대왕 역사문화관>¹⁴⁾ 등이 있다. 그런데 <국한박>이 실제 제시하는 유관 박물관은¹⁵⁾ 협력망의 중앙관인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외에 <국립고궁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국립박물관과, 시립박물관인 <서울역사박물관>¹⁶⁾과 <청주고인쇄박물관>,¹⁷⁾ 사이버박물관인 <옛문서생활사박물관>,¹⁸⁾ 사립·기업박물관인 <교과서박물관>¹⁹⁾과 <전주한지박물관>²⁰⁾ 등 역사박물관²¹⁾ 계통 위주이며 문서, 책, 인쇄, 한지 등의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국외의 경우, 세계 6,000여 언어 및 40여 문자와 관련한 박물관들 중에서 <국한박>이 관계망으로 제시하는 곳은 영국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 독일 <언어박물관(Wortreich IN BAD HERSFELD)>, 미국 <국립언어박물관(The National Museum of Language)>, 남아프리카

생애와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 ‘세종이야기’의 총6개 섹션 중, 제3섹션 ‘한글창제’는 한글창제과정과 원리, 『훈민정음해례본』과 언해본, 『용비어천가』 등을 전시.

- 14) 세종외가와 영릉(英陵)이 있는 경기도 여주시 소재. 3개의 상설전시실과 1개의 기획전시실(개관기획전 ‘성군이 태어나다’, 2017.5.15~2017.7.16)이 있다.
- 15) <국한박> 누리집 참조.
- 16) “서울의 장소와 역사와 기억을 저장하는” 목적으로 2002년 개관.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소재.
- 17) 1992년 개관. 충북 청주시 소재. 현존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 『직지(直指)』(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간행(1377년)된 청주 흥덕사에 만들어진 박물관.
- 18) 경북 안동시 한국국학진흥원이 운영. 조선시대 및 근대시기 옛문서, 50만점의 소장자료를 생활문화전시관, 문서소품관, 멀티미디어관, 참여사진관으로 구분해 선인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
- 19) 2003년 9월 개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주)미래앤(구 대한교과서)이 설립한 박물관으로 ‘교과서주전시장’과 ‘인쇄기계전시관’을 운영.
- 20) 2007년 <팬아시아종이박물관>으로 개관 후, 2012년 재개관. 전북 전주시 소재. ‘전주페이퍼’가 운영하며 한지역사·미래·생활·체험관으로 구성됨. ‘한술제지’가 1997년부터 운영한 <한술종이박물관>(현재는 <Museum SAN>의 페이퍼갤러리, 강원도 원주시 소재)와 다르나 <국립한글박물관>의 누리집에는 <팬아시아종이박물관>으로 기재 후, <Museum SAN>의 누리집을 명기, 수정이 필요함.
- 21) 박물관은 주로 소장품의 종류로 특징지어진다. 박물관은 크게 ‘미술박물관(미술관)’과 ‘미술관 이외의 박물관’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의 기본적 철학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자는 ‘예술작품(works of art)’ 자체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며 후자는...(중략)...인간계 및 자연계의 예증으로 가치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박물관의 3분류는 미술·역사·과학박물관이다. G. Ellis Burcaw, *Introduction to Museum Work*, American Association for State and Local History Press, 1983, p.31.

카공화국 <아프리카언어박물관(DIE AFRIKAANSE TAALMUSEUM)>, 중국 <중국문자박물관(中國文字博物館)>과 <중국은허박물관(中國殷墟博物館)>, 일본 <일본인쇄박물관(日本印刷博物館)>, 캐나다 <캐나다언어박물관(CANADA LANGUAGE MUSEUM)>, 브라질 <포르투갈언어박물관(museu da lingua oirtuguesa)>, 헝가리 <헝가리어박물관(A MAGYAR NYELV MÚZEUMA)> 등 10개의 박물관이다.²²⁾

그런데 문자와 관련한 박물관으로 한정하면, <국한박>을 비롯한 아시아권의 <중국문자박물관>,²³⁾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²⁴⁾ 인도 뉴델리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²⁵⁾과 서구권의 <대영박물관>,²⁶⁾ 프랑스 <피작-샹폴리옹 세계문자박물관(Musée Champollion Figeac)>²⁷⁾이

22) <국한박> 누리집. 이밖에 언어관련 박물관으로는 아르헨티나 <도시언어박물관>,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에스페란토박물관>과 <언어섬박물관> 등이 있다.

23) 중국 국무원이 설립을 비준(승인)해 2009년 개관했다. 정식 명칭은 <허난(河南)중국 문자박물관>이다. 중국문자의 발원지(갑골문 발견지)인 허난성 안양(安陽)시에 위치하며 문화재 4천여 점과 전시자료 1천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세계 최초·최대 규모로 문자를 주제로 한 국가급 박물관으로 문자전시실, 주체(중심)관, 창힐관, 과학보급관, 연구센터 등 5개 건물로 이뤄져 있다. 문자전시실은 4층 규모의 6개 전시실로 구성되는데, 각 전시구역은 갑골문, 금문, 도문(도자기에 쓰여진 문자), 옥석문, 옥새에 새겨진 문자, 고대 화폐에 새겨진 문자, 간독(대나무 조각과 나뭇조각에 새겨진 문자), 백서(비단에 쓴 글), 역대 비문, 한자 인쇄술과 한자 정보 처리, 『설문해자』(중국 최초의 문자학 서적)와 고대자서(古代字書), 한자 발전사, 한자 서예사, 소수민족 글자 등 모두 12개로 구분된다(<중국문자박물관> 누리집).

24) 1983년 일본 치바현 사쿠라시에 설립된 종합역사박물관이다. 일본 고대 목간(木簡) 및 가나문자 관련 자료를 소장·전시하고 있다.

25) 인도문자와 관련한 필사본, 비석 등이 전시되고 있다.

26) 2000년 11월 한·영 교류 200주년 기념으로 한국관(The Korean Foundation Gallery, 67번 전시실)을 신설, 『훈민정음』(복제품)을 포함한 구석기 유물부터 조선 후기 미술품 등 25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단, 대영박물관 누리집에 『훈민정음』에 관한 설명은 빠져있다.

27)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독한 프랑스 학자 장 프랑수아 샹폴리옹(Jean-François Champollion)의 생가를 박물관으로 만들어 1986년 개관했던 곳을 고쳐 2007년 재개관한 곳이다. 피작(Figeac)시는 농촌지역과 도시 간 연대 및 협력을 목적으로 지리적 위치와 문화, 경제, 사회 등 유사한 인근지역을 통합해 ‘피작지구(Pays de Figeac)’를 형성, <피작-샹폴리옹 세계문자박물관>을 확장 및 재건축했다. 8개 전시장은 주제별로 제0관- ‘샹폴리옹과 이집트’(샹폴리옹의 연구업적 전시), 제1관- ‘인류, 세계 그리고 문자’, 제2&3관- ‘문자의 탄생, 상형·이집트·중국·마야문자’, 제4관- ‘알파벳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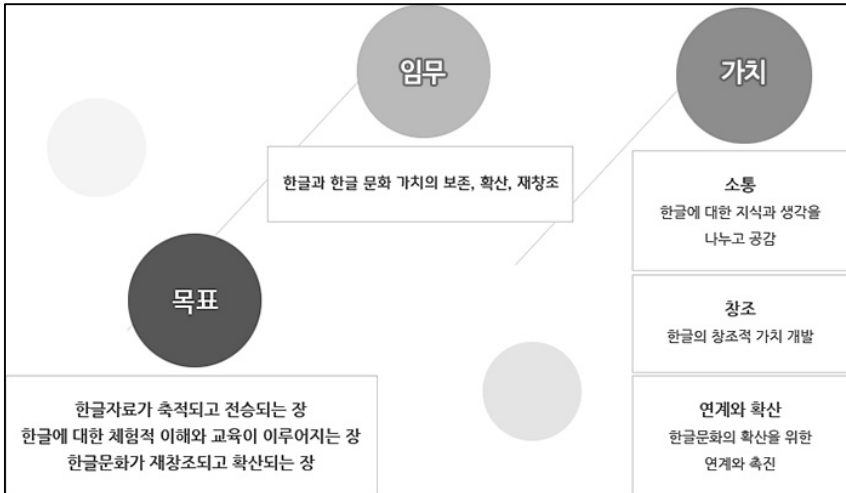
해당된다. 특히, 자국문자 전문 국립박물관은 <국한박>과 <중국문자박물관> 2곳이다. 이중에서 <국한박>은 중국 및 일본의 유관박물관과 관계망을 구축해가고 있다.²⁸⁾ 아울러 <국한박>은 2020년 인천 송도에 개관 예정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²⁹⁾³⁰⁾과 어떤 관계성과 차별성을 가질지 고려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2. <국립한글박물관>의 임무(mission)와 한글자료의 가치

박물관의 임무는 해당 박물관의 존립이유이자 정체성으로, 대내외적 위상과 관계망을 견고히 해주는 기반이자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 해줌으로써, 그 특성과 가치를 구축하게 하는 지표이다. <국한박>의 경우에는 ‘한글과 한글문화 가치의 보존, 확산, 재창조’를 임무로 제시하고 있다.[그림 2]

발명’, 제5관- ‘인류의 책과 기록’, 제6관- ‘문자, 권력 그리고 시민’ 등이다. 민지은, 지영호, “문화도시인증을 통한 지역브랜드 구축전략에 관한 연구-프랑스 ‘예술과 역사도시’ 인증사업을 중심으로”, <2014 봄철 학제간 신진학자 융합세미나>, 한국광고학회(2014.5.31), 10~11쪽 참조.

- 28) 한중일 3국 문자박물관의 MOU가 체결됐고(2016.11.24), 현재 <한중일 서체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2017.9.28~12.31).
- 29) “접근성과 매력성이 입증된 국제비즈니스도시로서 문화인프라 구축”을 내세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건립유치가 확정됐다(2015.7.16).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립비 950억 규모(현재 약100억 삭감됨)로 연면적 20,000㎡ 내외에 들어서며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페이지즈(Pages)>가 당선됐다(2017.9.15). 인천광역시 누리집.
- 30) 최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부지로 ‘용산가족공원’이 선정됐다(“국립한국문학관 부지 선정에 서울시 자치구 ‘들썉’”, 중앙일보, 2017.9.11). 향후 <국립중앙박물관>-<국한박>-<국립한국문학관>이 연계한 ‘용산 국립박물관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를 대비한 <국한박>의 전략이 요청된다.



[그림 2] <국립한글박물관>의 임무(출처: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이와 관련한 <국한박>의 목표를 살펴보면, 한글과 한글문화의 가치가 3단계 -1)한글자료의 축적·전승, 2)한글에 대한 체험적 이해와 교육, 3) 한글문화의 재창조·확산-의 순차적 수행으로 이룩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국한박>이 지향하는 가치는 ‘한글에 대한 지식과 생각을 나누고 공감(소통)’, ‘한글의 창조적 가치 개발(창조)’, ‘한글문화의 확산을 위한 연계와 촉진(연계와 확산)’에 두고 있다. 즉, <국한박>은 과거 한글자료 중심의 전문박물관으로서 현재의 한글을 ‘활용(use)’한 직접 경험과 교육으로 소통하고 창조하는 동시에 미래 한글문화로 재창조·연계·확산하는 가치 구현의 ‘장(場)’임을 관람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한박>의 임무·목표·가치를 박물관의 기본적 정의³¹⁾와 대비해 보면, 박물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보전보다는 적극적 활용을

31) 「박미법」 제2조(정의):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통한 새로운 한글문화의 창출에 좀 더 방점을 찍으며 ‘한글(자료)’과 한글(문화)을 분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한박> 개관위원장의 기고문은 그 이유에 대한 가닥을 잡을 수 있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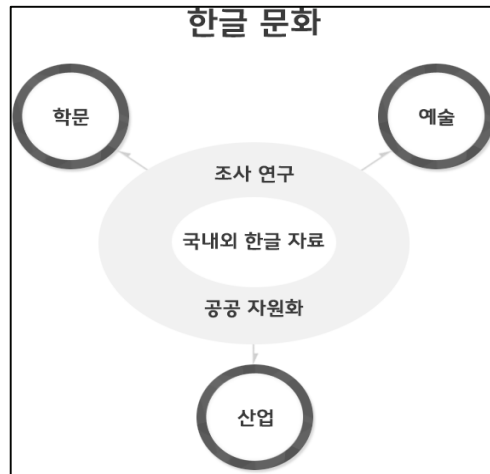
대부분의 박물관이 과거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데 비해 한글박물관은 한글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다함께 공존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훈민정음 창제는 물론이고 그 이전과 이후의 문자생활을 망라해 디지털 아카이브화하여 누구나 그곳에 가면 한글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중략)… ‘한글’은 오래 국어학자들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한글은 단순히 말을 표기하는 문자의 기능을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것을 담는 문화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오늘날의 한글은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중략)… 한글은 모든 분야를 종합하고 융합하는 문화적 요소이므로 언어학적인 측면뿐 아니라 문화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이를 통해 우리 문화를 재창조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을 축적해야 하며, 시공간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와 전 세계를 담아야 할 것이다.³²⁾

위 글은 기존 박물관의 성격을 단지 과거 유물의 전시장으로 치부하고, 박물관 관리체계의 하나인 정보화를 마치 <국한박>만의 새로운 기능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특정 학문의 대상으로서의 ‘한글’(문자적 기능)과 현대 문화산업사회의 한글(문화적 기능)을 대비해 후자로 한국문화 발전의 중심축으로 삼아 시공을 아우른 것이 한글문화이자 <국한박>의 주요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한박>은 한글문화를 [그림 3]과 같이 규정한다. 즉, 한글문화는 학문·예술·산업을 포괄하는 국내외 한글자료를 조사·연구해 공공의 자원으로 가공한 것 또는, 그러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심에 놓인 한글자료는 박물관의 임무와 직결된 ‘박물관 소장정책’³³⁾을 거쳐 형성되는 ‘박물관자

32) “[기고/홍윤표]한글박물관 개관을 준비하며”, 동아일보, 2013.6.4.

33) 유물(유/무형) 수집의 범위(분야, 시대, 지역 등)·관리(등록, 보존처리 등)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박물관자료가 될 수 있다.

료³⁴⁾이다. 이것은 박물관의 가치판단 및 체계가 적용된 박물관의 원천으로 중요하다.



[그림 3]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문화’의 성격
(출처: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그런데 <국한박>의 ‘박물관자료’는 기본적인 학문적·예술적 가치³⁵⁾ 외에 ‘산업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비중 또한 크다는 것을 앞서 살펴봤다. <국한박>이 ‘산업적 가치’에 보다 주력하게 된 것은

34) 「박미법」시행령 제1조의2(박물관자료의 기준): 「박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09.6.4.]

1.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법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존 또는 활용이 가능한 증거물일 것

2. 무형적 증거물의 경우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나 정보일 것

35) 「박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 2009.3.5]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화 시대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참여정부-이명박정부’ 각 시기별 문화국가(Cultural Nation) 실현을 위한 문화산업 진흥의 문화정책과 이에 따른 정부주도의 여러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 예컨대, 국립국어원³⁶⁾은 2000년에 국어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사이버 한글박물관>(이후 <디한박>으로 명칭 변경)구축계획’을 수립, 한국어세계화재단³⁷⁾과 연계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³⁸⁾ 추진한 사업의 결과로 <디한박> (2007.10.9)을 개관했다. <디한박>의 목적과 특징을 살펴보면, <국한박>의 임무·목표·가치는 물론이거니와 개관준비위원장의 기고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개념들, 즉 ‘한글문화(유산)’, ‘축적’, ‘전통적 개념의 박물관에서 벗어나’, ‘시공간의 제약 극복’, ‘소통’ 등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한박>은 한글과 관련된 모든 문화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일반 대중이 한글 문화유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즉, <디한박>은 한글을 국가 지식의 핵심 콘텐츠로서 인식하고, 한글 문화유산 정보를 영구적으로 축적하고 한글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중략)…<디한박>은 전통적 개념의 박물관에서 벗어나 시공간상의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소통 체계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박물관 간의 정보 교류 및 대중과의 소통이 주요한 과제가 되었는데 <디한박>은 바로 이러한 정보 축적 및 소통 체계를 새롭게 제시한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³⁹⁾

36)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문화정책관>국어정책과 산하 국어 관련기관이다. 이밖에 세종학당재단(구 한국어세계화재단), <국한박> 등이 속해 있다.

3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진흥 및 한국어 세계화 진흥·보급을 위해 2001년 1월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재단법인(2012년 12월에 국가의 특별 법인으로 ‘세종학당재단’이 설립되면서 해외 보급에 관한 일은 이 기구가 주로 담당. 「국어기본법」 제19조의 2에 근거).

38) 5년간 총 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글 중요문헌 500여종, 총 40,000면 -한글역사자료(한글 고문헌 등), 한글예술사자료(한글 서예 등), 한글생활문화사자료(족보·서간 등), 한글교육사자료(교과서 등)-을 디지털화했다. 「국립국어원 20년사」

(http://www.korean.go.kr/niklintro2/20years05_04_02.jsp) 참조.

또한, 한글은 200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통문화 세계화를 통한 문화강국 실현”의 비전으로 추진한 ‘한브랜드지원전략’ 및 2006년 ‘한스타일(Han Style)’의 한 분야로, 한류의 원천 콘텐츠(문자한류)라는 가치를 부여받았다.⁴⁰⁾ 특히, “문화의 산업적 기여를 위한 문화콘텐츠 정책”을 강조한 ‘이명박정부’는 2008년 문화정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한글의 실용성·산업성’을 강조한 <한글문화관> 건립을 표명했고,⁴¹⁾ 이에 따라 2009년말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국가 상징물로서의 <국한박> 건립 및 부지(현 위치)가 확정됐다.⁴²⁾ 한편, <한글역사문화관>을 추진해오던 한글문화단체들은 ‘한글의 우수성·독창성’에 중점을 두고, 2009년 10월 ‘한글문화관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세종대왕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경복궁 부근에 “겨레 문화 성지로 만들고 <한글역사문화관>을 세워 온 세계에 한글과 세종대왕을 자랑하는 문화관광지”를 건의한⁴³⁾ 이후 정부 측의 <국한박>수립안을 절충·수용하게 된다.

그러나 산업적 ‘한글문화관’이든 상업적 ‘역사문화관’이든 경제적 수익을 추구한다면 박물관이라 하기는 어렵다.⁴⁴⁾ 왜냐하면, 박물관은 다른 문화기관과 달리 소장품의 보전을 기본으로 한 “비영리적(nonprofit) 향

39) 같은 글.

40) 한민족 정보마당 누리집.

41) “문화정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 창조와 맥락이 닳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전통과 정신이 새로운 가치로 성장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글 문화관 건립 등을 통해 한글의 실용성을 더욱 가다듬어 한글이 문화산업 곳곳에 적용되도록 할 것이다.” 박광무, 「이명박정부의 문화정책: 정책구조와 초기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社會科學』 42(2)(통권 제55호),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173쪽.

42) <국한박> 누리집. 국립·(한글)전문박물관인 <국한박>은 또한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수·산업박물관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43) 리대로, “한글박물관이 아닌 한글역사문화관이다: [논단] 한글은 박물관에 들어갈 글자가 아니다, 한글 뜻 새길 장소돼야”(2013.8.6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daero47&logNo=10173837096>).

44) 한글의 역사적·학문적 가치는 기존의 사이버박물관인 <디한박>이 수행하고, 산업적·상업적 가치에 충실할 수 있는 ‘한글홍보(자료/문화)관’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구(permanent)기관”으로 대중에게 평생교육과 문화향유의 잠재적 가치를 ‘제공(provide)’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물관의 임무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고(significant) 중요한(important)” 소장품을 수집·조사·연구·분류하는 수집정책은, 박물관의 주요 기능인 넓은 의미의 교육(전시, 좁은 의미의 교육 프로그램 등)의 ‘의미망’을 형성하는 기본 요소이다.

이렇듯 수집정책은 박물관의 가치판단이 적용되는 동시에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주는 원동력이므로 명확하고 상세한 기준 및 범위를 설정해야만 한다.⁴⁵⁾ <국한박>의 경우에는 ‘선(先)건립확정 후(後)수집’에서 비롯한 시급성과 제한성으로 ‘소장품의 빈곤’을 겪었다.⁴⁶⁾ 전시품의 선별(selecting)은 전시주제는 물론 소장품의 성격과 상태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하므로, 소장품이 부족하면 선택의 폭 역시 제한될 수밖에

45) 국립국어원 기획단계의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글이 써여 있거나 한글과 관련된 국내외의 문서, 출판·인쇄물, 증서, 유품, 기념품, 글꼴, 디자인, 문화상품, 예술 작품, 기계, 생활용품, 사진, 영상자료, 신문, 교육자료, 한글역사 연구자료 등을 전시하는 한편 한글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의 기능까지 수행하게 된다.”(「국립국어원 20년사」)라는 전시대상에서 광범위한 수집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글박물관 종합발전방안」(문화체육관광부, 2012.9., 175쪽)에서는 수집범위를 “한글로 쓴 문헌, 한글 관련 시청각자료 모두”와 “한글관련 연구물(논문, 보고서, 학술자료집)”, 중장기적으로는 “한글창제 및 창제이전 문자생활자료(향찰, 이두, 구결자료 등과 창제 당시의 주변문자에 대한 자료)”로 하여 보다 한글의 역사적·학문적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다. 단, 수집정책은 대상의 범주화(학문별, 분야별 등), 시기의 상정(가령 현대 자료도 포함할 것인지), 지역의 설정(가령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자료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자료의 성격(가령 1차/2차 자료-텍스트, 이미지 등-로 구분할 것인지) 등을 명시해 진행해야하며 특히, 한글 조형예술작품·디자인 등의 경우는 그 ‘작품성’이나 ‘조형성’의 평가기준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다.

46) 2012년 12월 ‘국립한글박물관 개관준비팀’이 발족한 이후 2014년 10월 개관까지 기증 7,500여 점, 공개구입 2,500여점 등 총 10,000여점을 수집했고, 이중에서 700여점이 전시됐다(「문화공간: ‘한글을 꽃 피우다’-국립한글박물관 개관」, 『오늘의 한국』 52, 2014.10.13). 현재 <국한박>은 공개구입을 진행(2017년도 제1차: 3월, 제2차: 8월) 중이다. 자료기증의 대상은 “훈민정음 창제에서 현재까지 한글의 상징성, 역사성을 갖춘 유·무형의 자료, <국한박>의 전시·교육·연구 등에 활용 가치가 있는 자료, 한글 관련 행사(한글날, 기념식, 학술 대회 등) 관련 자료 일체, 한글 관련 영상물, 디자인, 현대 미술품, 서체 등 관련 자료”이며 자료구입의 대상은 “훈민정음 창제 전후에서 현대에 이르는 한글 관련 통시(通時) 자료, 전시(상설전시 교체, 특별전) 및 조사·연구에 활용할 자료, 기획전시, 박물관 교육, 데이터베이스 정보 공개, 문화 산업 개발 등의 활용 대상 자료”이다(<국한박> 누리집 참조).

없다. ‘소장품의 빈곤’은 결국 실물 ‘전시품의 빈약’⁴⁷⁾과 더불어 전시매체의 ‘의미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Ⅲ. 〈국립한글박물관〉 전시매체의 의미충위

1.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주제와 의미망

<국한박>은 사이버 박물관인 <디한박>이 실제 박물관으로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사례이다. 가상이 실제화 되기까지는 양자 공통의 목적, 즉 세계화 시대 “국가 대표 콘텐츠”인 한글을 보전해 정보화 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 한글문화를 활성화”하는 한글의 효용적 가치가 작동했음을 앞서 살펴봤듯 <국한박>의 전시구성 역시 <디한박>이 모태가 되고 있다.[표 1]

[표 1] 〈디지털한글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주제 비교
(「국립국어원 20년사」, 〈국한박〉 누리집 참조)

〈디지털한글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초기	현재	상설전시	세부 내용[전시기법]
-	“한글”	“한글이 걸어온 길”	-
가. 역사관 (한글창제 발전사)	㉔연표 (세종이전~21 세기, 한글관련 주요 사건)	1. 제1부: 새로 스물여덟 자 를 만드니	①계해년 겨울, 정음을 창제하 시니 (한글창제~21세기, 한글문화) [영상자료]

47) 「한글박물관 종합발전방안」에 따르면, 현대사회는 소유를 넘어 공유가 주요 패러다임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영구수집 외에 소장품의 공유 및 활성화가 된다 보고, 영구기탁·장기대여·이관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언급하고 있다(앞의 글, 174~177쪽).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장처의 상황·조건이나 장기대여의 고비용 등 난제가 발생하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의 문자를 주제로 현재 추진 중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공개 세미나, 2016.1.28 참조).

	㉔한글이야기		②한글이 없던 시대의 문자 (차자 표기법)[설명·그림자료+모형]
	㉕.한글의 탄생과 역사 (한글창제, 문자생활사, <u>세계 문자의 역사</u>)		③한글창제의 원리 (『훈민정음 해례본』의 창제원리) [복제품+영상자료(키오스크 등)]
나. 조형예술관(한글 제자원리·글꼴, 조형예술·비석·간판 등 한글 생활문화 관련 자료)	㉖. 아름다운 한글(한글 조형성·글꼴·타이포그래피, <u>세계 문자의 조형예술</u>)	2. 제2부: 쉽게 익혀서 편히 쓰니	④널리 한글을 펴다 (언해→불교·유교경전류, 외국어교재, 종교서적, 의학·무기 등 실용서적) [실물·그림·설명·영상자료]
	㉗. 생활 속 한글(의식주생활·편지·민속·관혼상제·문서·여성문화, 현대인의 한글생활)		⑤살 속에 자리 잡다 (고문서류, 생활용품, 문학작품, 민속예술 대본 등)[실물·설명·음향·영상자료]
			⑥근대의 물결과 마주하다 (근대출판물, 기계화·타자기) [실물·설명·영상자료]
다. 교육 문예관 (한글 규범·교육과정, 국어 교과서 관련 자료, 한글 문예 작품 등)	㉘. 한글과 교육(한글날, 국어교과서, 한글사용규범)		⑦새 모습으로 거듭나다 (한글연구·표기 표준화·교육 관련 서적) [실물·설명·그림·영상자료]
라. 미래관 (기계화·정보화·세계화로 압축되는 한글 미래상 모색·타자기·워드 프로세서 등의 한글 문자발전 상징물)	㉙. 한글의 진화와 미래 (한글의 기계화, 국어 정보화, 한글의 세계화, 통일과 한글)	3. 제3부: 세상에 널리 퍼져 나아가니	⑧현재를 살아가다 (한글 조형성·글꼴·타이포그래피, 옛우리말, 북한어, 지역어, 정보화) [실물·설명·영상자료(키오스크 등)]

마. 학술정보관 (한글 관련 소장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제공)		한글 놀이터 (6~9세용)	‘쉬운 한글’, ‘예쁜 한글’, ‘한글 숲에 놀러 와!’ [영상자료 등]
		한글 배움터 (외국인, 다문화가족용)	‘한글을 만나다’, ‘한글을 몸으로 배우다’, ‘한글, 세계와 만나다’, ‘한글과 여행을 떠나다’, ‘한글에 추억을 담다’[영상자료 (모션월 등)]
↓	↓	↓	
한글 관련 모든 문화자료 수집 →디지털화 →대중에게 제공	한글에 대한 학술정보·역사·전시자료 제공	한글과 한글문화 가치의 보존·확산·재창조	

<디한박>의 현재구성을 살펴보면, “한글”이라는 제목으로 ‘연표’와 ‘한글이야기’라는 2개의 대주제로 구분하고, ‘한글이야기’를 다시 5개의 소주제로 나누고 있다. 한편, <국한박>의 상설전시는 “한글이 걸어온 길”을 제목으로 하며 3개의 대주제에 대해 각각 3개, 3개, 2개씩 총 8개의 소주제로 구분했다. 이들은 한글의 창제를 기점으로 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한글로 된 것’의 양상을 ‘보여주는’ 공통점을 갖는다. 단, 양자의 차이점은 세계문자와 관련한 <디한박>의 구성(㉠-㉣, ㉤)이 <국한박>에 없는 대신,⁴⁸⁾ 한글 문자의 도상성을 활용한 조형성·글꼴·타이포그래피가 정보화 등과 함께 <국한박> 상설전시의 마지막(3-⑧)을 장식하며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⁴⁹⁾ 또한 <디한박>의 ‘口’에서 기계화를 이동(2-⑥)시키고, 세계화 부분을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글 배움터’의 체험으로 특화하고 있다.

48) 그 이유는 각주 47)로 예상 가능하다.

49) “한스타일”의 주력사업은 한국어 외국보급 확대, 한글디자인, 한글 문화상품개발(한민족 정보마당 누리집)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그림 4] 전시의미망의 구조

기본적으로 전시는 박물관의 주체가 일련의 스키마에 따라 순환적으로 행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망이 형성된다.[그림 4] 즉, 박물관의 임무에서 기획된 전시의도-전시주제-전시구성이 수립되면, 이에 따라 전시품의 선별-전시방법-전시배치-전시관리-전시평가의 세부적 사항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평가의 결과는 다시 전시주체인 박물관측에 전달·보완되는 것이다. 그런데 <디한박>과 <국한박>은 문자로서 우수한 한글의 효용적 가치에 중점을 둔 박물관이기에 무엇보다 한글(훈민정음)의 우수성·과학성을 입증해주는 원본, 『훈민정음 해례본』⁵⁰⁾⁵¹⁾이 박물관의 근간이 되는 원천자료이자 가장 주된(main) 전시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디한박>과 <국한박> 모두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에 관한 내용부

50) 간송본(국보 제70호, 간송미술관 소장)이 세계 유일의 음운학(phonology)적 문자창제 원리의 가치가 있는 고문서로 1997년 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51) 단,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형태를 온전히 갖춘 책(『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과 『훈민정음 언해본』 모두 결실이 있음)이 없는 문제점(문화재청, 『훈민정음 언해본 이본 조사 및 정본 제작 연구』, 2007, 5쪽)에 따른 복원본은 여러 논쟁을 낳고 있다(“[초점] 문화재청이 복원한다는 훈민정음, 이래서 예산낭비”, NEWSIS, 2017.8.28),

터 전시를 시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물관 소장품의 전시는 유물(artifact), 기호와 상징(sign and symbols), 의미부여(meaning)의 3가지 방식으로 이뤄지는⁵²⁾만큼 무엇보다 “박물관을 상징하는 대표유물”⁵³⁾의 부재는 전시구성의 어려움은 물론 전시의미의 형성과 박물관 흡인력의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

2.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구성과 매체적 의미충위

전시는 전시주체가 원하는 의미로 꾸며질 수 있는 재현의 매개수단이자 장치이다.⁵⁴⁾ <국한박>의 경우, 한글의 산업적 가치에 중점을 둔 전시주체의 의도와 해석(interpretation)으로 고안된 전시구성의 시공간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경험하며 그 의미를 이해한다. 본 절에서는 <국한박>의 전시구성을 ‘도입부-전개부-결말부’로 구분해 방문자(visitor)의 전시경험과 체험의 측면⁵⁵⁾이 교차하는 주요 사례들을

52) Susan M. Pearce, *Museums, Objects and Connections*,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990, p. 156.

53) 이미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한글박물관 종합발전방안」, 177쪽). 그러나 2008년 배익기가 공개한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은 2011년 원래 소유권자의 승소판결이 났으나 미반환되고 있고(“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갑갑한 운명’”, 한겨레, 2013.1.17), 본인의 재산으로 등록하며 그 가치를 1조원으로 기재한 바 있다(“훈민정음 해례본이 뭐길래-1조원 가치 있나?”, KBS뉴스, 2017.3.27). 한편 상주박물관(경북 상주시 소재)은 2013년 ‘훈민정음해례(상주본)유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중이다. 그런데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은 물론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의 원 소유권자에 대한 논란이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국보급 훈민정음 해례 어디서 나왔나-간송·상주본 모두 논란”, 연합뉴스, 2017.3.30).

54) Ivan Karp & Steven D. Lavine eds., *Exhibiting Cultures -The Poetics and Politics of Museum Display*,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991, p. 12.

55) 전통적 개념인 관람객(audience)이나 경험적 수행자(performer), 재현적 시청자(viewer)로 하지 않은 이유는, 박물관의 방문 목적·기대치가 개별적·다층적이며(전시를 다 보지 않는 경우 등) 원하는 경험·의미·가치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즉, “재창조의 시간으로 가치 있고 즐거울 것, 가족·친구들과 방문할 수 있는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킬 것, 물리적으로 예측가능하고 친숙한 경험이 존재할 것(동물원, 어린이 박물관 등), 명상적·정신적·경건한 경험이 될 것, 흔하지 않고 특이한 것, 주제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만들 것, 그들의 관심사를 넓히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 일과 집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을 것”(Gail Dexter Lord & Barry Lord, *The Manual of*

중심으로 그 의미충위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1) 도입부

박물관에 들어선 첫 공간은 박물관에 대한 관람자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성을 갖는 곳으로 대개 박물관의 임무를 함축한 상징물이 들어선다.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박물관 입구 주변에 놓이기도 하는데 <국한박>은 [그림 1]처럼 건물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⁵⁶⁾ 따라서 [그림 5]가 <국한박> 방문자가 처음 보게 되는 실내 광경이다. 이곳은 마치 현대적인 카페처럼 느껴지는 ‘매끄러운 공간’일 뿐, 한글 및 한글의 우수성과는 무관해 보인다. 상대적으로 <중국문자박물관>의 랜드마크처럼 거대한 상징물[字坊]⁵⁷⁾은 너무 과장되고 거대해 보이나, 이곳이 중국문자의 역사와 관련된 박물관임을 명시할 뿐 아니라 그 ‘물성의 힘’으로 자국 역사의 위대함을 드높이려는 정치적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⁵⁸⁾[그림 6]

Museum Planning: Meeting the Needs of Museum Visitors, The Stationery office, 1991, pp. 57~58) 등이다. 또한, 박물관이 하나의 문화로 여겨지면서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문화적 서비스와 체험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추세에 있기에, 본 절에서는 경험과 체험을 분별해 사용하고자 한다.

- 56) 문제는 건축의 의미를 모르는 대다수의 방문자에게 단지 박물관 건물일 뿐이라는 것이다.
- 57) ‘방(坊)’이란 중국 고대건축의 주요형식의 하나로 ‘패방(牌坊)’, ‘패루(牌樓)’라고도 불리며, 경물과 랜드마크의 성격을 지닌 중화문화의 전형적 표식(높이 18.8M, 너비 10M)으로 갑골문(甲骨文)과 금문(金文)의 ‘자(字)’자를 본뜬 것이다. 도철문(饕餮紋)의 그림으로 장식, 고풍스러우면서도 위엄이 있어 박물관의 전체 모습과 혼연일체를 이뤄 본 박물관의 상징이 되고 있다. 또한, 자방의 양측에 세워진 금빛의 구리 봉조(鳳鳥)조각은 상주(商周)청동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봉조문(鳳鳥紋)으로 장식된 고귀하고 단아한 모습을 갖고 있으며, 금방이라도 날아갈듯 한 기세로 새로운 시기 중국 문자문명의 새로운 비약을 상징한다. <중국문자박물관> 누리집.
- 58)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자국문자에 대한 ‘국가의 시선’을 가늠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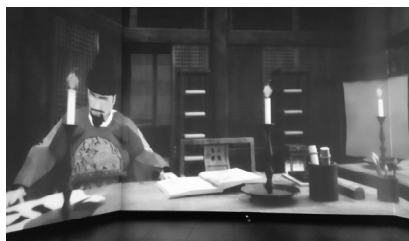
[그림 5] ‘ㅎ 카페’와 문화상품점
(출처: <국한박> 누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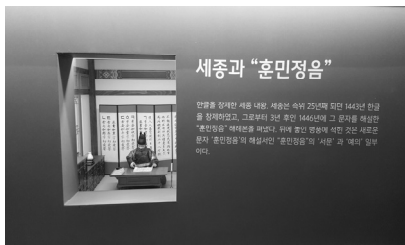
[그림 6] <중국문자박물관>의 상징물
(출처: <중국문자박물관> 누리집)



[그림 7] 상설전시 도입부의 조형물
(직접촬영, 2017.9.)



[그림 8] 제1부 영상, “계해년 겨울, 정음을 창제하시니”(직접촬영, 2017.9.)



[그림 9] 제1부 연표 중, 세종과 “훈민정음”
(직접촬영, 2017.9.)



[그림 10] 제1부 “한글의 창제와 원리”
(직접촬영, 2017.9.)



[그림 11] “훈민정음 · 난중일기展
: 다시, 바라보다”,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
(출처: 『문화+서울』 5월호)

<국한박>의 전시실 입구는 [그림 5]의 오른쪽 측면 부분이다. 전시실을 들어서면, 먼저 『훈민정음 언해본』 내용의 조형물이 가로막는다.[그림 7] 이것은 전시실 안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관심을 유발하는 전시기법의 하나인 동시에 박물관 상징물의 역할을 하는 듯하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국한박>의 전시주제인 한글과 관련한 방문자의 한글인식이다. 대다수 한국인 방문자는 한글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점자, 수어 포함) 한글이 우리의 글자이고 세종대왕이 창제한 “나랏말싸미 듕귎에 달아...”로 시작하는 ‘훈민정음’의 업적과 가치를 ‘잘 알고 있다’고 여긴다.⁵⁹⁾ 또한, 국어교육을 통해 한글의 창제 · 짜임 · 변천 · 의의 · 우수성 · 세계 속의 한글 · 미술/패션으로서의 한글에 관해 배운다.⁶⁰⁾ 따라서 방문자는 이 전시공간의 내용이 너무 친숙한 지식과 경험을 줄 것을 예견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외 없이 애민논리⁶¹⁾의 세종대왕

59) 특허청이 제52주년 ‘발명의 날’(2017.5.19)을 맞아 실시한 ‘폐친들이 뽑은 우리나라를 빛낸 발명품 10선’에서 ‘훈민정음’이 1위(32.8%)를 차지했다(“[카드뉴스]네티즌이 뽑은 우리나라 최고의 발명품 10”, 뉴스웨이, 2017.5.21).

60) 박주연,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성격 분석: ‘한글이 걸어온 길’ 상설전시 중심으로」, 서울교대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21쪽, <그림Ⅱ-1> 교과서 대주제별 비중도.

61)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이유가 애민정신만 아니라 왕조의 정당성 고취를 위한 훈

과 ‘훈민정음’을 영상으로 만난다.[그림 8] 이것은 또한, 모형으로 동어 반복됨으로써, 그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그림 9]

[그림 10]은 <국한박>이 중점을 두는 한글의 우수성과 직결된 ‘한글창제원리’ 섹션이다. 방문자인 어린이는 키오스크가 반복하는 디지털의 밝고 큰 화면과 소리에 몰입하고 있고, 체험이 끝나면 전시장 바닥에 찍혀 있는 ‘한글(훈민정음)을 밟으며’ 이동하도록 돼있다. 어린이는 시청각을 자극하는 체험에 몰두하느라 기대고 있던 전시대 안의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의 복제품)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 주된 전시요소가 돼야 할 이 전시품은 오히려 부차적(sub) 전시요소인 화면에 압도되고 매몰돼 있다. 만약, 이 ‘실물’이 원본이었다면 이렇듯 밝은 화면에 둘러싸일 수 없으며⁶²⁾ 전혀 다른 전시구성이 됐을 것이다. 예컨대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을 전시한 [그림 11]을 보면, 독립장 하나로 전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로 인해 어둠 속에서 ‘힘’을 발휘한다.

2) 전개부

<국한박> 전시구성의 제1부를 중심으로 한 도입부에 이어 전개부([표 1]의 2~3-⑦)는 시기적으로 한글창제부터 광복 전후까지, 내용적으로는 ‘한글’이 우리의 말과 생각을 담는 도구로 삶과 문화를 확산시킨 역사성·매체성·정체성을 보여주는 유물이 비교적 다수 전시돼 있다. 이와 관련한 전시품들은 경전, 교재, 고문서, 인쇄물, 출판물 등 주로 서적류이다. 그런데 이들 실물전시는 일정한 톤의 크기와 색감의 벽면을 따라 ‘흘러가고’ 있으며 오히려 [그림 12], [그림 13]과 같이 ‘한글로 된’ 서적류의 한 부분을 확대해 전시공간의 중앙에 놓이거나 세운 거대한 영상물들이 주목을 끈다. 마치 미적(aesthetics) 조형물처럼 보이는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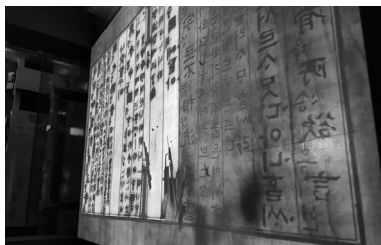
민교화, 한자음 정리목적, 대외적·정책적 관점에 있다는 연구들도 있다. 같은 글, 3쪽.

62) 자료보존에 적절한 빛은 50~200LUX이지만, 보존상태 및 가치에 따라 50LUX 이하로 유지하는게 안전하다.

물들은 ‘한글’의 역사적 맥락성, 삶 속에 자리한 역동성, 본질적인 도구성을 ‘영상미’로 희석시킨다.



[그림 12] 제2부 목판인쇄영상
(출처: <국한박> 누리집)



[그림 13] 제2부 연해본영상
(직접촬영, 2017.9.)



[그림 14]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신발과 가방 전시
(출처: <Auschwitz-Birkenau State Museum in Oswiecim> 누리집)

더욱이 ‘한글’의 역사성은 전시의 시공간 속에서 재편되고 통제된다.⁶³⁾ 예컨대, 과거의 기억을 불러줄 서적류의 냄새, 촉감 등의 감각적 계기가 소거됨으로써, 역사적 흔적은 현재의 “문화적 기억”으로 전환되지 못한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민족정체성과 주권회복의 표상이던 ‘한글’의 역사성은 개별 한글학자들의 연구 및 교육차원으로 분절돼 놓여있을 뿐이다. 이는 [그림 14]처럼 집적된 감각의 ‘거친 공간’을 통해 역사

63) 물리적 공간에 저장된 지식, 정보, 기억들이 국가권력의 통제 하에 집단지성으로 공공성을 획득하는 양상에 관해서는 알라이다 아스만 저, 변하수·채연숙 옮김, 『기억의 공간-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그린비, 2011, 472~475쪽 참조.

적 의미가 재현되는 장기기억의 매체환경과 대별된다.⁶⁴⁾

3) 결말부

[표 1]에서 확인했듯이 <국한박>은 영상자료⁶⁵⁾의 전시기법이 대부분의 전시구성에 적용되고 있다. 흔히 DT 매체를 활용한 전시기법이 방문자와의 상호작용을 고양해 더 ‘즐거운 경험’을 준다⁶⁶⁾고 여기지만, 박물관의 종류·예산과 함께 전시주제·구성·전시물의 속성·다른 전시물과의 관계 등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⁶⁷⁾ 상대적으로 많은 실물전시의 전개부를 지나면, <국한박>의 임무 내지 ‘정치적 의도’와 밀접한 전시의 결말부([표 1]의 3-⑧)에 도달한다. 이곳은 실물전시 보다 밝고 다채로운 영상자료 위주로 구성한, 경험 보다는 체험을 강화한 공간이다.⁶⁸⁾

64) 아우슈비츠의 트라우마와 장기기억에 관해서는 같은 책, 454~461쪽 참조.

65) 디지털 원리를 기반으로 한 영상,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시뮬레이션, 모션월(motion wall) 등과 지향성 음향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66) 박지혜, 김병선, 「박물관 전시 매체의 특성에 따른 관람객 경험의 차이」, 『언론과학연구』 13(1), 한국지역언론학회, 2013, 93쪽.

67) 영상자료는 유지·관리 등의 통상적 비용 발생은 물론 급속한 기술발달에 따른 갱신이 못 미칠 때 자칫 ‘낙후된’ 박물관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예산집행을 요한다.

68) 지하 1층, 지상 3층의 <국한박>은 약3,420평(11,767㎡, 상설·기획 전시실, 체험·교육시설 포함)이며 상설전시실이 위치한 2층의 면적은 약678평(2,239㎡, ‘홍카페’와 문화상품점 포함), 기획전시실과 한글배움터 등이 위치한 3층의 면적은 약790평(2,609㎡, 한글놀이터 등 포함)이다. 개관당시 보유한 소장품 10,000여점 중 약700점이 전시됐다고 보면, 상설전시실(약600평)은 1평당 약0.8개의 소장품이 전시된 것으로, 전시면적 대비 실물전시품목의 부족을 산출할 수 있다.



[그림 15] 제3부 “세종대왕께 보내는 편지”
(직접촬영, 2017.9.)



[그림 16] 제3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을지니”(직접촬영, 2017.9.)

[그림 15]는 상설전시의 마지막 섹션으로 박물관의 임무를 함축한 ‘보여주고 싶었던 의미’의 결론에 해당하는 중요한 곳이다. 여기에 놓인 키오스크는 방문자로 하여금 사진을 찍고 간단한 내용을 입력하게 한 후, ‘세종대왕께 보내기’ 버튼을 눌러 자신의 이메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장치는 방문자와의 인터랙션으로 체험을 자극하는 한편, 전시를 모두 마무리 짓는 방문자가 자신의 단상을 기록하고, 나중에 다시 확인하게 함으로써, 박물관이 의도했던 경험과 의미를 반추시키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 단, 이 과정을 수행하는 방문자는 체험에 몰두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전시구성 내용이 보여주려던 ‘한글·한글문화의 우수성·산업성’보다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개인의 ‘업적성’으로 환원될 위험성이 있다.⁶⁹⁾

69) 도입부의 주제를 재연하는 유비적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세종대왕의 역사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문자의 본질인 ‘탈주체성’을 상기하자는 것이다.

결말부에 밀집한 영상자료들의 부유하는 이미지는 <국한박>이 강조하려던 효용적 한글의 산물인 한글디자인·문화상품에 대한 ‘미적경험’을 오히려 방해하며 같은 공간에 탈맥락적으로 포진된 한국어 관련섹션(지역어, 북한어 등)은 전시구성의 결론적 의미를 흐트러뜨린다. 출구에 위치한 [그림 16] 역시 이를 조장한다. 전시장을 떠나는 방문자들이 요구받는 것은 빠른 몸놀림으로 풍선을 터뜨려 해당단어의 소리를 맞추는 게임방식의 인터랙션 체험이다. 이른바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적인 재미를 느끼도록 하려는 것이다.⁷⁰⁾

하지만 박물관은 재미 뿐 아니라 교훈과 감동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⁷¹⁾ 박물관의 경험은 ‘의미 있고 중요한 실물’을 기반으로 생성된다. 이러한 전시물이 놓인 의미망의 시공간 속에서 방문자의 경험은 반향한다. 이것은 “삶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매체에 속하는 경험들이다.”⁷²⁾ 즉, ‘정박된’ 전시물이 생성하는 이질적 의미들의 ‘사이 공간’에서 방문자는 공적시간 속의 즉각적 반응이 아닌 사적시간 속의 지체로 의미를 환기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박물관의 경험은 ‘보이지 않는 경험’이라 할 수 있으며 박물관은 방문자의 “영혼을 고양시켜 사고와 감각의 폭을 넓히고 상상력을 자극해 매혹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곳”⁷³⁾이라는 차별적 가치를 갖게 된다.

70) <국한박> 방문 외국인 관람객 평가를 조사한 최근 논문에 따르면, 전시관람 만족도에 있어 항목별로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미국인), ‘전시 및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일본인), ‘한글이 과학적이고 훌륭한 문자라고 느낌’(중국인)에 대해 각각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김주연 외, 「국립한글박물관 외래관람객 방문행태간 연관성 및 차이분석-주요 국적별(미·일·중) 외래관람객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6), 한국콘텐츠학회, 2017, 120~121쪽.

71) 벨처는 박물관의 유형을 박물관의 기조로 삼는 전시개념과 관람객으로부터 끌어내고자 하는 반응에 관련지어 감동적, 교훈적, 재미있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M. Belcher, *Exhibitions in Museums*, Leicester University Press, 1991, p. 58.

72) Arthur C. Danto, 이성훈·김광우 옮김, 『예술의 종말 이후』, 미술문화, 2004, 344쪽.

73) Neil Kotler·Philip kotler, 한종훈·이혜진 옮김, 『박물관 미술관학-뮤지엄 경영과 전략』, 박영사, 2005, 5쪽.

Ⅳ. 맺음말을 대신하며: ‘전시의 시학과 정치학’

위에서 논의한 <국한박> 전시매체의 의미층위(Ⅲ)는 전시주체인 국립 박물관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어떤 사회문화적 담론을 수용하는가(Ⅱ)에 의한 국가이미지의 고양과 밀접함을 살펴봤다. 즉, 문화산업논리에 따라 국가정체성과 직결된 ‘한글’의 역사적·학문적·문자적 가치를 활용해 한글(한글문화)의 실용적·산업적·효용적 가치의 국가핵심콘텐츠로 상정하는 가치판단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박물관이 어떤 가치에 더 중점을 두느냐, 어느 가치가 보다 사회적 공공성을 위한 것인가 등의 논의는 1980년대 중반이후 ‘신(新) 박물관이론학(New Museology)’에서 비롯했다. 즉, “박물관의 당대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 성원의 정체성 확보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⁷⁴⁾이다. 이에 비해, ‘구(舊) 박물관이론학(Old Museology)’은 박물관이 기능적 ‘방법’(수집·보존·연구·전시 등)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박물관의 ‘목적’(공공과의 소통)을 등한시 하는 것”⁷⁵⁾이다.

원래 ‘신 박물관이론학’은 서구의 역사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한 박물관의 사회문화운동⁷⁶⁾을 이론화한 것이다. 즉, 박물관이 ‘근대적 지(知)’를 공공(the public)에게 계몽하는 유물 중심의 ‘경직된’ 기능주의의 발달(‘구 박물관이론학’)에 대한 탈근대적 반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박물관

74) Stephen E. Weil, *Rethinking The Museum-and other meditations*,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996, p. 58.

75) Peter Vergo, ed., *The New Museology*, Reaktion Books Ltd., 1989, p. 3.

76) 1960년대 이후 프랑스 등에서 시작됐으며 미국의 ‘이웃박물관(neighbourhood museum)’, 남미 중심의 ‘통합박물관(integral museum)’ 등으로 전개됐다. “1980년대 이후로 ‘신박물관학’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소수집단박물관(minority museum)운동’과 스페인의 ‘영토박물관(territory museum)운동’, 캐나다의 ‘유산박물관(heritage museum)운동’, 1991년 이후로 브라질에서 시작돼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공동체 박물관(community museum)운동’은 새로운 박물관 운동의 대표적 기수들이다.” 김영숙, 「에코뮤지엄(Ecomuseum)개념 도입을 통한 박물관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 연구」,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35~36쪽.

관의 근대성 및 탈근대성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박물관의 전시를 논의한 개념이 바로 ‘전시의 시학과 정치학’이다. 예컨대, 1991년 캅스(Ivan Karp)와 래빈(Steven D. Lavine)이 편집한 『전시 문화들(Exhibiting Cultures: The Poetics and Politics of Museum Display)』은 “문화와 재현의 문제, 미술관과 국가적 정체성, 그리고 마이너리티의 문화들, 박물관의 실제 업무들, 박물관의 시각에서 타자의 문화들에 대한 담론들이 논의되고 있는 연구이다. 모든 박물관에서의 전시는 그것의 주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문화적 가정들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전시를 위해 결정하는 과정들은 하나의 진실이나 측면들을 강조하는 행위이고,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다른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Ivan Karp & Steven Lavine, *Ibid.*, p.1) 따라서 전시의 근본적인 성격은 전시물들을 논쟁적인 영토로 이끌어내는 작업이라는 것이다.”⁷⁷⁾ 또한, 1996년 웨일(Stephen E. Weil)은 전시의 재현을 시학(poetics)과 정치학(politics)의 2가지 양상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전시의 내러티브·미학을, 후자는 전시의 구성(상대적 지식을 구성하는 방법)과 이해의 사회적 상황을 강조⁷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홀(Stuart Hall)은 언어를 중심으로 한 문화학의 관점에서 언어를 통한 재현의 의미생산과정에 주목한다. 그는 기호적(semiotic) 접근과 담론적(discursive) 접근을 분별하고, 전자는 언어가 어떻게 의미를 생성·재현하는지 ‘시적’으로 고려한다면, 후자는 재현의 영향·결과(consequences)를 ‘정치적’으로 고려한다고 보며 재현의 특정 형식(시공간)의 전개 또는 제도(regime)의 역사적 특성을 강조한다.⁸⁰⁾

77) 김형숙, 「박물관·미술관 연구의 실태와 과제」, 『예술경영연구』 8, 한국예술경영학회, 2005, 72쪽.

78) ‘신 박물관이론학’을 기반으로 한 소통이론의 한계는 이미 1990년대 논의된 바 있다. 즉, ‘희생자로서의 관람자(viewer-victim)’(Lynne Cooke & Peter Wollen ed., *Visual Display: Culture Beyond Appearances*, The New York Press, 1995, p.9) 개념이나, 관람자가 전시경험을 통해 그들의 지식을 인지하고 선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시의 ‘제공(provide)’(Ivan Karp, *Op. cit.*, p. 22) 개념을 들 수 있다.

79) *Ibid.*, pp.57~61.

80) Stuart Hall, ed.,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단, 서구의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된 ‘전시의 시학과 정치학’의 개념을 적용할 때, 한국 박물관의 역사적 특수성⁸¹⁾을 먼저 고려해야만 한다. ‘신 박물관이론학’과 길항하는 ‘구 박물관이론학’의 구축마저 미완인 상태에서 우리는 세계화시대 문화담론에 쫓겨 ‘구 박물관’ 본연의 기능을 미룬 채, 역사적 가치보다는 산업적 가치에 몰두하며 문화적 공공재·소비재로 ‘신 박물관’을 짓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시의 시학과 정치학’의 시사점은 ‘신 박물관’ 주체의 가치가 사회적 공공성과 관련한 논쟁을 지속적으로 유발한다는 것과, ‘구 박물관’의 경우에 “웨일(S. E. Weil, *Op. cit.*, 189)을 인용하면, 오히려 진정한 이슈는 박물관의 가치를 어떻게 제거하는가가 아닌, 그 가치를 어떻게 분명히 하는지, 또한 어떻게 그 가치를 우리와 박물관 방문자 모두에게 자각되도록 고양하는지 이다.”⁸²⁾

SAGE Publications/The Open University, 1997, pp. 1~6.

- 81) 이에 관한 세부적 내용은 엄소연, 「박물관 전시와 사회적 맥락의 함의관계-조선시대 오복(五福)상징 목칠공예품의 전시분석-」, 『민속학연구』 22, 국립민속박물관, 2008, 109~110쪽 참조. <국립중앙박물관>조차 타자가 이식한 근대적 박물관인 <제실박물관>의 개관(1909.11.1)이후 100여년(2005년)만에야 용산에 ‘안착’할 수 있었다.
- 82) Miriam Kahn, “Reviewed Work(s): Exhibiting Cultures: The Poetics and Politics of Museum Display by Ivan Karp and Steven D. Lavine”, *American Anthropologist*, New Series, 94:3, 1992, p. 745.

참고문헌

- 김영숙, 「에코뮤지엄(Ecomuseum)개념 도입을 통한 박물관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 연구」,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주연 외, 「국립한글박물관 외래관람객 방문행태간 연관성 및 차이분석-주요 국적별(미·일·중) 외래관 탐객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6), 한국콘텐츠학회, 2017, 116~123쪽.
- 김형숙, 「박물관·미술관 연구의 실태와 과제」, 『예술경영연구』 8, 한국예술경영학회, 2005, 70~81쪽.
- 문화재청, 『훈민정음 언해본 이본 조사 및 정본 제작 연구』, 2007.
- 문화체육관광부, 「한글박물관 종합발전방안」, 2012.9.
- 민지은·지영호, “문화도시인증을 통한 지역브랜드 구축전략에 관한 연구-프랑스 ‘예술과 역사도시’ 인 증사업을 중심으로”, <2014 봄철 학제간 신진학자 융합세미나>, 한국광고학회(2014.5.31).
- 박광무, 「이명박정부의 문화정책: 정책기조와 초기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社會科學』 42(2)(통권 제55 호),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161~190쪽.
- 박주연,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성격 분석: ‘한글이 걸어진 길’ 상설전시 중심으로」, 서울교대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박지혜·김병선, 「박물관 전시 매체의 특성에 따른 관람객 경험의 차이」, 『언론과 학연구』 13(1), 한국지역언론학회, 2013, 219~261쪽.
- 이난영, 『박물관 관리 운영의 이론과 실무, 博物館學』, (주)삼화출판사, 2011(2008).
- 엄소연, 「박물관 전시와 사회적 맥락의 함의관계-조선시대 오복(五福)상징 목칠공예품의 전시분석-」, 『민속학연구』 22, 국립민속박물관, 2008, 109~136쪽.
- Assmann, Aleida 저, 변학수·채연숙 역, 『기억의 공간-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그린비, 2011.
- Danto, Arthur C. 저, 이성훈·김광우 역, 『예술의 종말 이후』, 미술문화, 2004.
- Kotler, Neil·Kotler, Philip 저, 한종훈·이혜진 역, 『박물관 미술관학-뮤지엄 경영과 전략』, 박영사, 2005.
- Belcher, M., *Exhibitions in Museums*, Leicester: Leicester University Press, 1991.
- Burcaw, G. Ellis, *Introduction to Museum Work*, Nashville, Tennessee: American Association for State and Local History Press, 1983.

- Cooke, Lynne · Wollen, Peter ed., *Visual Display: Culture Beyond Appearances*, New York: The New York Press, 1995.
- Hall, Stuart, ed.,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London · Thousand Oaks · New Delhi: SAGE Publications/The Open University, 1997.
- Lord, Gail Dexter · Lord, Barry, *The Manual of Museum Planning: Meeting the Needs of Museum Visitors*,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1991.
- Kahn, Miriam, “Reviewed Work(s): Exhibiting Cultures: The Poetics and Politics of Museum Display by Ivan Karp and Steven D. Lavine”, *American Anthropologist*, New Series, 94:3, 1992, pp.774~775.
- Karp, Ivan · Lavine, Steven D. eds., *Exhibiting Cultures -The Poetics and Politics of Museum Display*, Washington D. 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991.
- Pearce, Susan M., *Museums, Objects and Connections*, Washington, D. 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990.
- Vergo, Peter, ed., *The New Museology*, London: Reaktion Books Ltd., 1989.
- Weil, Stephen E., *Rethinking The Museum-and other meditations*, Washington D. 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996.

인터넷 자료

- “국립한국문화관 부지 선정에 서울시 자치구 ‘들썩’”, 중앙일보, 2017.9.11.
- “국보급 훈민정음 해례 어디서 나왔나-간송·상주본 모두 논란”, 연합뉴스, 2017.3.30.
- “[기고/홍윤표]한글박물관 개관을 준비하며”, 동아일보, 2013.6.4.
- 리대로, “한글박물관이 아닌 한글역사문화관이다: [논단] 한글은 박물관에 들어갈 글자가 아니다, 한글 뜻 새길 장소돼야”(2013.8.6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daero47&logNo=10173837096>).
- “문화공간: ‘한글을 꽃 피우다’-국립한글박물관 개관”, 『오늘의 한국』 52, 2014.10.13.
- “[초점]문화재청이 복원한다는 훈민정음, 이래서 예산낭비”, NEWSIS, 2017.8.28.
- “[카드뉴스]네티즌이 뽑은 우리나라 최고의 발명품 10”, 뉴스웨이, 2017.5.21.
-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갑갑한 운명’”, 한겨레, 2013.1.17.
- “훈민정음 해례본이 뭐길래-1조원 가치 있나?”, KBS뉴스, 2017.3.27.
- 「국립국어원 20년사」(http://www.korean.go.kr/niklintro2/20years05_04_02.jsp).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공개 세미나(2016.1.28).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국립한글박물관> 누리집.
인천광역시 누리집.
한민족 정보마당 누리집.
“e-나라지표: 등록박물관/미술관 현황”(http://stat.mcst.go.kr/mcst/resource/static/index/index03.html).
<中國文字博物館> 누리집.
<Auschwitz-Birkenau State Museum in Oswiecim(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주립박물관)> 누리집.
ICOM 누리집.

Poetics and Politics of *Hangeul* Exhibition Medium:

focused on the exhibition analysis of the

〈National Hangeul Museum〉

Eom, Soyeon

This study is examined the meaning and value occurred with interacting *Hangeul* and exhibition media through the exhibition analysis of the 〈National Hangeul Museum(NHM)〉 in the view of museum studies and exhibit semiotics. The 〈NHM〉, Opened on *Hangul* Proclamation Day in 2014, it is the first national special *Hangeul* museum. There is also a cyber museum, the 〈Digital Hangeul Museum(DHM)〉, opened on *Hangul* Proclamation Day in 2007. These museums have something in common, that is, a government led-policy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for the purpose of creating cultural nat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erefore, the 〈NHM〉 is strongly aimed at promoting *Hangeul* to so called the ‘National Killer Contents’ by stressing the cultural practicality and utility of *Hangeul*, using its phonogramic superiority and scientific characteristics of ‘*Hangeul*’.

According to the mission and political intention of the 〈NHM〉, it is formed the network of meaning about exhibit theme and construction. The museum visitors have to experience ‘the things of museum subject wants to show’, which is designed for the tool of representation, and to understand its meaning. Because of a lack of artifacts, the 〈NHM〉 mainly exhibits digital images, ‘a Paradise of Image’, so that it emphasizes a ‘National Image’ of funny physical experiences, rather than emotivity and lesson. The signification layer of looking and performing highlights that of the ‘hidden experience’ of ‘inter-space’ and the value of the museum. Finally, I would rethink the value of the 〈NHM〉 by discussing ‘the Poetics and Politics of Exhibit’ that resides in ‘New Museology’ which

is regarded museum as a cultural element.

Keywords : *Hangeul*, exhibition, medium, signification layer, 'poetics and politics of museum exhibit', National Hangeul Museum

투고일 : 2017. 11. 20. / 심사일 : 2017. 12. 03. / 심사완료일 : 2017. 12. 13.

